

'사회적 거리두기' 추가 완화 가능할까

중대본, 16일부터 거리두기 조정방안 논의 "이달 23일 전후 유행 정점 후 꺾여" 예측

정부는 오는 21일부터 새로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 논의를 시작했지만 정작 거리두기 완화 가능성에 대해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대폭 완화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와는 대비된다.

전문가들은 아직 유행 정점과 규모를 알 수 없으며 거리두기 완화는 아직 이르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이미 방역 조치를 많이 완화해 거리두기를 풀더라도 유행 증가세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부터 서면으로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열고 거리두기 관련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현행 사적모임 6인, 영업시간 오후 11시 제한은 오는 20일까지 적용된다. 정부는 21일부터 새로 적용될 거리두기 관련 논의를 이날 시작해 오는 18일 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논의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은 거리두기 대폭 완화다. 이 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지난 4일 현행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면서 "다음번 거리두기 조정부터 본격적으로 완화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거리두기 조정 전 열린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는 방역 전문가들을 제외한 경제·민생, 사회문화, 자치안전 분과,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

처에서 거리두기 완화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유행 정점과 규모를 알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을 오후 10시부터 11시 1시간 연장하는 방안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번 논의에서도 지난 2주 전과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완화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발언과 함께 오는 23일 전후로 유행세가 꺾일 것이라는 7개 연구기관의 예측치가 나오면서 완화에 힘이 실어주는 모양새다.

현재로서는 이번에도 소폭 완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거리두기 전면 폐지 가능성도 점쳐진다. '거리두기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면서 완화 움직임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 내부적으로는 거리두기 완화에 관련해 속내가 복잡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조정 당시 거리두기 완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최근에는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당초 이르면 이번 주에 유행 정점에 도달한다는 정부의 예측과 달리 아직 정점 시기와 규모가 확실하지 않으면서 설부터 완화 가능성을 언급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2월 말 하루 3만명대 유행을 예상했던 정부는 2월 중순 하루 10만명대 확진자가 나올 것이라는 예측치를 내놨다. 이어 2월 말 17만명, 3월



중순 27만명이 발생한다고 예상했는데, 이보다 빠른 지난 9일 34만2433명이 발생했다.

이달 들어서는 정점으로 16일 최대 37만2000명으로 예상됐지만, 지난 12일 38만2659명이 발생하면서 예측을 빗나갔다.

정부는 오는 23일 전후로 유행세가 꺾인다고 전망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불투명하다.

여기에 지난 14일부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양성 판정을 받은 유증상자나 신속 유전자증폭(PCR) 선제검사 양성자도 확진자로 집계되면서 실제 방역 당국이 발표하는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용 RAT 양성자가 집계에 처음 포함된 지난 15일 0시 기준 하루 확진자 수는 36만2338명이다. 당초 주말 검사량 감소 영향에 집계되는 확진자 수가 평일보다 적어야 하지만, 전문가용 RAT 양성자가 포함되면서 확진자가 늘었다.

특히 15일에는 주말에 줄었던 PCR

검사량이 늘어나고 전문가용 RAT 양성자까지 더해지면서 오후 9시까지 43만9305명이 확진되는 등 예측치를 상회하는 확진자가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전문가용 RAT로 PCR 검사로 파악하지 못했던 감염자를 추가로 확인한 만큼 실제 감염자 수는 여전히 많을 것이라 보면서도 정점을 완전히 지난 때까지 거리두기 완화를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미 거리두기를 큰 폭으로 완화한 만큼 더 완화하더라도 이미 유행세가 커질 대로 커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도록 완만하게 증가하고 감소하는 유행을 유도하고 있지만 실제 거리두기를 풀면서 유행 곡선이 더 높아지고 길게 지속되는 현상이 이어지게 될 것"이라며 "감염으로 자연면역을 획득하는 이들이 늘어날 때까지 유행이 이어지면서 중증·사망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재환기자



이동형 PCR 검사 기다리는 학생들

16일 서울 관악구 인현중학교에서 학생들이 코로나19 대응 현장 이동형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기 위해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진통제·해열제 없다' 확진자 폭증에 '품귀'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세가 이어지면서 의료 현장에서는 의약품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치료제 파스로비드는 물량이 부족해 처방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뿐 아니라 소염진통제·해열제 등 호흡기 질환에 사용되는 다른 의약품도 구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유행 기간 중 마스크·타이레놀·진단키트 부족 사태가 연이어 터져나왔음에도 정부의 수요 관리 실패로 의약품 품귀 현상이 또다시 현실화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하루 30만명이 넘는 확진자가 연일 발생할 정도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먹는 치료제인 파스로비드는 현재 사실상 시장에서 자취를 감춘 상태다. 특히 신속항원검사서 양성 판정을 나와도 파스로비드 처방이 가능해져 이 약을 구하려는 환자들이 급격히 늘고 있다. 현재 파스로비드는 지정 약국 472곳에서만 조제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처방을 받아도 재고가 남아 있는 약국을 찾으러 멀리까지 이동해야 하는 환자들과 불편도 커지고 있다. 또 약 처방과 조제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환자를 상대하는 병원과 약국들의 업무도 폭주하고 있다.

의료 현장에서는 이같은 파스로비드의 품귀 현상에 대해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우선 정부가 파스로비드를 충분히 공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금까지 국내에 들어온 파스로비드는 16만3000명 분인데 처방된 물량은 5만3000명 분이고 11만명 분이 재고가 쌓여 있다는 것이다.

또 일각에서는 정부가 수요 관리에 실패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수십만 원에 달하는 파스로비드는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만 처방해야 할 약임에도 증상이 경미한 환자들까지 구매에 뛰어들게 했다는 지적이다.

이슬비기자



순천경찰, 산업단지 내 교통장애 해소를 위한 신속대응팀 운영

순천경찰서(서장 최병운)에서는 산업단지 내 교통 장애 해소와 원활한 물류 소통을 위한 '신속대응팀'을 구성하고, 울촌산업단지에서 대형교통사고 발생 상황을 가정한 신속대응팀 모의훈련(FTX)을 실시했다.

순천=김승호기자



나주경찰,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 안전교육 실시

나주경찰서(서장 김선우)는 지난 14일 학원 등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 동승보호자 50여명을 대상으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기동취재본부



보성경찰, 안전한 보성군 만들기 위한 주요 업무 추진 보고회

보성경찰서(서장 오임관)는 최근 각 과·계장, 파출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한 보성군을 만들기 위한 '22년 주요업무추진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성=김석순기자



광양경찰, 시민과 함께하는 교통안전 공청회 개최

광양경찰서(서장 장진영)는 15일 광양시 다압면 로타리 편의점 앞에서 지역주민, 다압청년회, 옥곡마을방방대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동네 교통사고 위험지역 및 불편사항 공청회"를 실시했다.

광양=심종섭기자



여수경찰, 산업단지·항만 교통안전시설 개선 간담회 개최

여수경찰서(서장 정성록)에서는 15일 여수상공회의소에서 도로교통공단, 여수시청, 여수산단, 항만 관계자 25명이 모여 산업단지·항만 교통안전시설 개선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여수=오상호기자



완도해경, 고립자 적극 구조한 선장에게 감사장 수여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경수)는 완도군 군외면 소재 완도대교 보강 작업 실시 중, 고각 점검 기계 고장으로 상공에 고립된 작업자 2명 구조에 적극 협조한 도선 선장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완도=이민혁기자

신규 확진자 4명 중 1명 한국...세계서 가장 많아

120만명 중 25.8%...2위 베트남은 16만명대

국내 오미크론 대유행이 정점기에 접어들면서 연일 30만명대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전 세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5.8%가 국내 확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 확진자 4명 중 1명은 한국인이 꼴이다.

16일 글로벌 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지난 14일(현지시간) 기준 국내 일일 신규 확진자는 30만9769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다. 전 세계 신규 확진자 120만2401명 중 25.8%가 한국에서 나온 것이다. 앞서 지난 12일에는 전 세계 확진자 142만9691명 중 38만3651명(26.8%)이, 13일에는 136만157명 중 35만176명(25.7%)이 국내 확진자로 나타났다. 한국의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2위인 베트남 16만1262명의 1.9배, 3위 독일 10만1872명보다 3배 큰 규모다. 한국보다 앞서 오미크론 유행을 겪은 미국은 1만7267명, 일본 5만2002명, 영국 4만7181명으로 감소했다.

15일 0시 기준 집계된 국내 신규 확진자 수는 36만2338명이고 누적 확진자는 722만8550명이다. 위중증 환자는 1196명, 사망자 수는 293명으로 역대 최다 수준을 기록했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대비 사망자 수를 뜻하는 치명률은 0.15%다.

다만 이처럼 많은 확진자 수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뒤늦게 확산세가 번진 탓에 먼저 유행을 겪은 나라들에 비해 일시적으로 큰 비중처럼 비치는 현상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치명률은 다른 나라

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박항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15일 정례브리핑에서 "1월 중순 오미크론 정점 당시 유행을 겪은 미국은 1만7267명, 일본 5만2002명, 영국 4만7181명으로 감소했다"며 "현재까지 누적 치명률은 각각 1.21%, 0.61%"라고 밝혔다. 그는 "(국내)일일 확진자 수가 30만명 이상 발생하면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확진자 수가 많이 발생했던 다른 나라에 비하면 낮은 치명률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와 방역 당국은 늦어도 다음 주 중 유행 정점에 도달한 뒤 23일부터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번주 오는 21일 이후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논의에 착수한 상태다. 서선욱기자